



단절된 등산로 연결... '시민의 숲을길' 2구간 개통 5일 오전 광주시 북구 일곡동에서 열린 한새봉과 삼각산을 잇는 '시민의 숲을길 2구간' 개통식에서 문인 광주북구청장과 시민들이 손을 흔들며 보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 지난해 광주·전남 교권침해 행위 2배 급증

#### 모욕·명예훼손 가장 많아

지난해 광주·전남에서 학생들의 교권 침해 행위가 두 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비례) 의원은 5일 '전국 교육청별 교육활동 침해 유형과 학생조치 및 피해교사 복무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 광주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교육활동 침해 심의건수는 2022년 97건→2023년 188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1학기에도 52건 발생했다. 지난해 기준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 간섭당한 사례가 7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모욕·명예훼손은 62건, 성폭력 11건, 상해·폭행 11건 등도 뒤이었다.

전남 또한 심의 건수가 2022년 104건에서 2023년 180건으로 늘었다. 올해 1학기 심의 건수는 45건이었다. 전남에서는 지난해 교육활동 침해 53건, 모욕·명예훼손 67건, 상해·폭행 21건, 성폭력 11건 등이 발생했다. 교권 침해가 교사들의 복무에 영향을 주는 사례도 확산되고 있다. 광주에서 교권침해로 특별휴가를 신청한 사례는 2022년 30건에서 2023년 60건으로 뛰었다. 연가는 0건→7건, 병가는 6건→10건 등으로 증가했다. 전남의 경우 특별휴가 신청자가 27건에서 32건으로 늘었으며 지난해에는 휴직자도 1명 발생했다. 백 의원은 "교육활동은 공교육 정상화와 학생교육을 위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광주 대인시장 차량 돌진사고 운전자 실수 결론

#### 70대 운전자 "조작 잘못" 시인

광주 대인시장 시설물을 들이받고 '급발진'을 주장했던 70대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잘못 조작해 사고를 냈다고 시인했다. 5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낮 12시께 광주시 동구 대인시장 주차장에서 사고를 낸 A(73)씨가 '차량 조작 실수였다'고 진술했다. A씨는 당시 차량을 몰고 대인시장 1공영주차장 출구를 빠져나오다 맞은편에 있는 2공영주차장 방향으로 돌진해 상인회사무실 건물 기둥을 들이받

았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A씨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차장 요금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오토홀드(자동 정차) 기능이 해제된 사실을 모르고 주차장 카드 정산기에 몸을 뺐었다가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으며, 건물 외벽 파손 등 피해는 대해 보험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광주 북구 '다함께 돌봄센터 11호점' 문 열어

광주시 북구가 초등생 방과 후 돌봄을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 11호점' 문을 열었다. 광주시 북구는 6일 광주시 북구 우산동 무등산 자이언어울림 아파트에서 다함께 돌봄센터 개소식을 열었다고 5일 밝혔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 돌봄 기관으로, 부모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센터에서는 기초학습 지도, 토말공예, 독서토론, 창의활동 등 요일별 다양한 특화돌봄 프로그

램을 제공한다. 이번 개소하는 센터는 154㎡(46평) 규모로 조성됐으며 프로그램실, 사무실, 주방 등 아동 돌봄에 필요한 공간도 마련됐다. 정원은 만 6세부터 12세 사이 초등학생 20명으로,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방학 중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북구는 지난 2019년 연제동에 다함께 돌봄센터 1호점을 낸 뒤 지난해까지 총 10개 센터를 개소했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 방학기간 결식 학생 집반찬 지원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이하 진흥원)이 방학기간 보살핌이 필요한 결식 우려 학생의 건강을 위해 집반찬을 지원한다. 진흥원은 이달 한 달간 광주교육학부모지원단과 함께 '방학 중 결식학생을 위한 집반찬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사업은 지역 봉사단체인 '광주대명여성라이온스클럽' 회원들이 재능기부로 반찬을 조리해 오전 중 학교로 전달하면, 각 학교 교육복지사가

반찬을 학생들의 가정에 직접 배달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집반찬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보냉박스, 얼음팩 등을 활용하고 섭취기간을 표시하고, 엄마의 마음을 담은 손 편지도 함께 전달할 계획이다. 대상 학생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학교(광주대성초 등 10곳)와 연계해 120명을 선정했으며, 여름방학 기간인 8월 한 달간 주 1회씩 총 4회에 걸쳐 반찬을 제공할 방침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

## 체육계 폭행 또...코치가 발로 차고 폭언

광주 모 고교 코치 입건 조사 학부모 고소장·교육청에 민원 "몽둥이 부러질 때까지 맞았다" 학생 2명 또 다른 증언도 쏟아져 코치들 "폭행·폭언한 적 없다"

을 당할까봐 해당 코치에게 항의조차 못했다. 하지만, A코치는 B양을 훈련에서 지도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시험 배제, 비꼬기 등 언어폭력을 지속했다고 B양의 부모는 주장했다. 결국, B양의 부모는 경찰에 고소장 제출과 함께 광주시교육청에 민원을 제출했다. 광주일보 취재진이 확보한 또 다른 진술서에 따르면 이 학교에서 2명의 학생이 추가로 해당 코치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C씨는 2021년 입학과 동시에 2년간 A코치에게 폭행과 폭언으로 고통받았다고 주장했다. 훈련에서 상대에게 밀리는 모습을 보이면 심한 욕설을 하고 발로 찼다고 했다. 그는 2019년 5월 18일 시험에서도 잘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A코치가 "그렇게면 때려쳐라"며 머리와 왼쪽 뺨을 때렸다고 토로했다. 그는 D코치도 "단체 옆드려 뺨치"를 시킨 뒤 하키채로 엉덩이를 자주 때렸고, 결국 트라우마 때문에 운동을 그만뒀야 했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학생도 D코치에게 몽둥이가 부러질 때까지 맞았다고 진술서에 썼다. 그는 "2019년 새벽

운동에서 달리기를 못했다는 이유로 3학년 주장을 시작으로 각각 50대씩 엉덩이를 몽둥이로 맞았다"며 "몽둥이가 부러지면 플라스틱으로 된 하키채를 가져와 다시 때렸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1학년생 8명 중 자신을 포함한 6명이 폭력을 견디다 못해 학교를 떠났다고 주장했다. A코치는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D코치 역시 "폭행과 폭언 모두 한 적이 없고 사실이 아니다. 하키와 관련이 없는 종목인데 하키채가 어디서 났겠느냐"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학교 스포츠 폭력이 근절되지 않은 이유로 '성적지상주의'를 꼽고 있다. 박은영 인권지기 활짝 활동가는 "학생들이 어린 나이에 체육에 인생을 걸었기 때문에 폭행·폭언을 당해도 내부 고발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며 "스포츠 인권교육이 실행되고 있지만 프로 선수단은 교육이 의무인 반면 고등학교 등은 자율 운영에 맡겨져 있다. 고질적 폭행·폭언 문제 해결을 위해 선 시교육청과 학교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화를 바꾸고 인권교육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	----------------------	-----------	-------------------------

· 본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